



은행 (Positive)

1월 연체율: 신규는 늘고, 정리는 줄고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 RA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국내은행의 2025년 1월 말 연체율은 0.53%(+8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월 중 신규 연체가 확대된 동시에 상매각은 COVID 이래 가장 낮은 수준(비율)으로 감소하면서 연체율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연체율 상승 추이가 유지되고, 이후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국내은행 1월 말 연체율 0.53%(+8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3%(+8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2%(+20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0%(+14bp YoY)로 상승. 현재 속도라면 오는 2월에는 COVID 구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05%(-7bp YoY)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
- 가계 연체율은 0.43%로 5bp YoY 상승.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4%(+10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9% (+4bp YoY)로 연체율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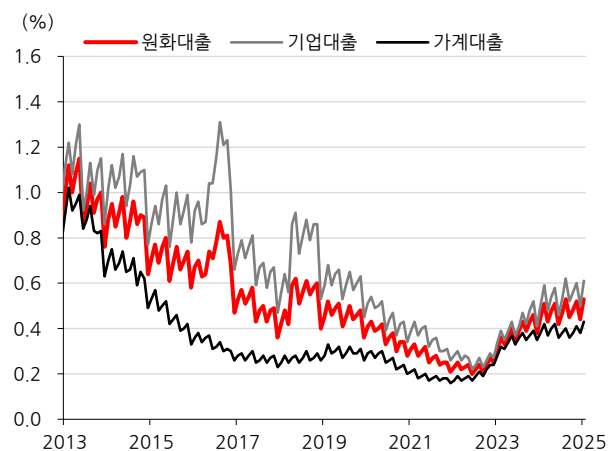
인위적인 연체채권 정리는 축소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월 말 12.5조원(+25% YoY)으로 증가 (그림7)
- 기업 (추정): 1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9% YoY로 추산. 법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모두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연체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더 빨라지지는 않고 있음 (그림10)
- 가계 (추정): 1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7% YoY로 추산. 한 자릿수까지 둔화되었던 가계 연체채권 증가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됨. 특히 주택대출의 경우 2019년~2020년 중 저리로 취급되었던 5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변동주기가 도래한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그림10)
- 1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3.2조원으로, 2018년 5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 (그림8).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1.0조원으로 23% YoY 감소

신규는 늘고, 정리는 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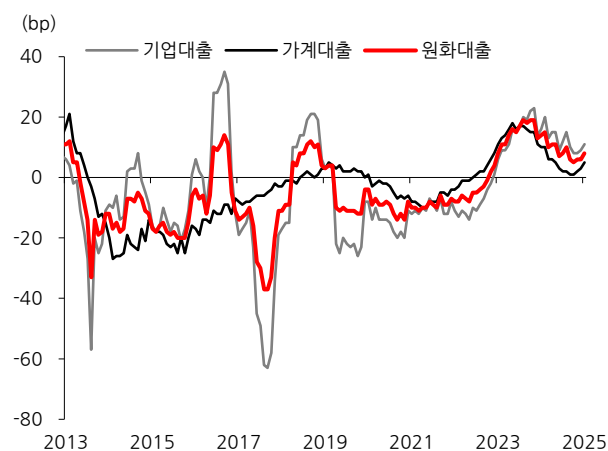
- 2025년 1월에는 모든 차주의 연체율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됨. 건전성 악화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채권의 정리 규모가 감소한 것이 원인 중 하나. 상·매각의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을 뿐 아니라 연체잔액 대비 비율로도 2019년 2월 이후 최저로 나타남
- 다만 동시에 신규 연체액이 3조원대로 증가한 것은 유의. 신규 연체율로 보아도, 특정 대기업의 연체가 일시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면 2016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연체율 상승 추세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갱신에 따른 가계 연체율 추이도 주시 대상임. 다만 시장금리의 하락이 차주별 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은행업종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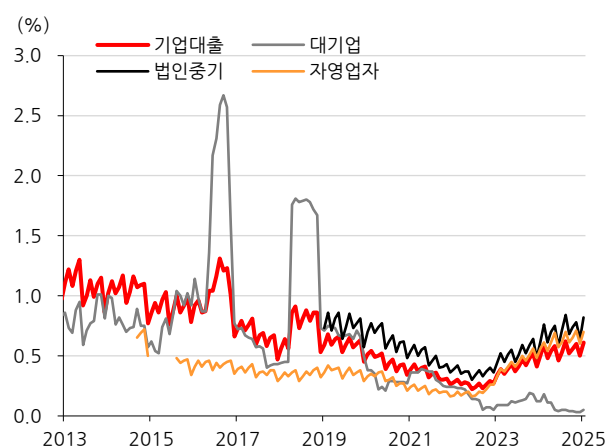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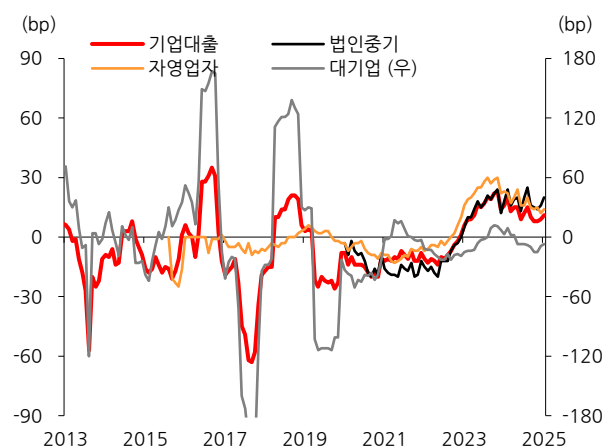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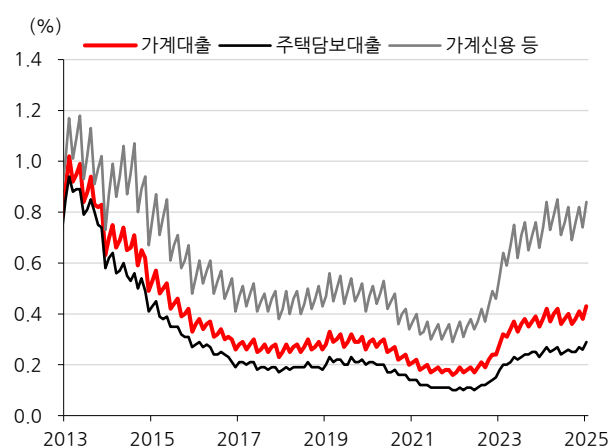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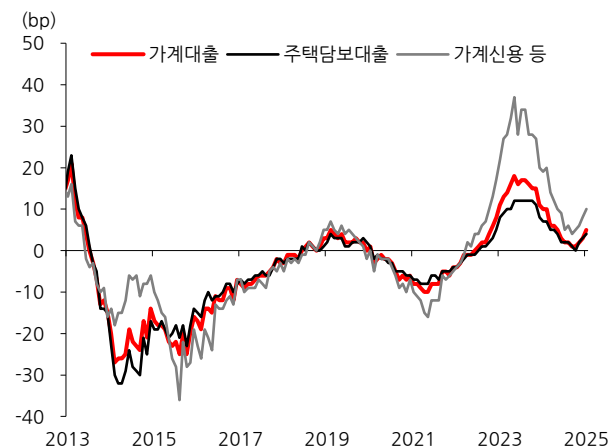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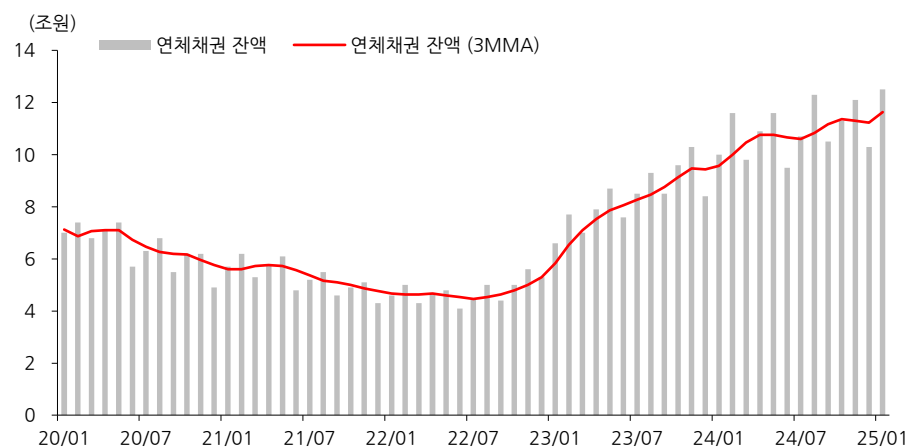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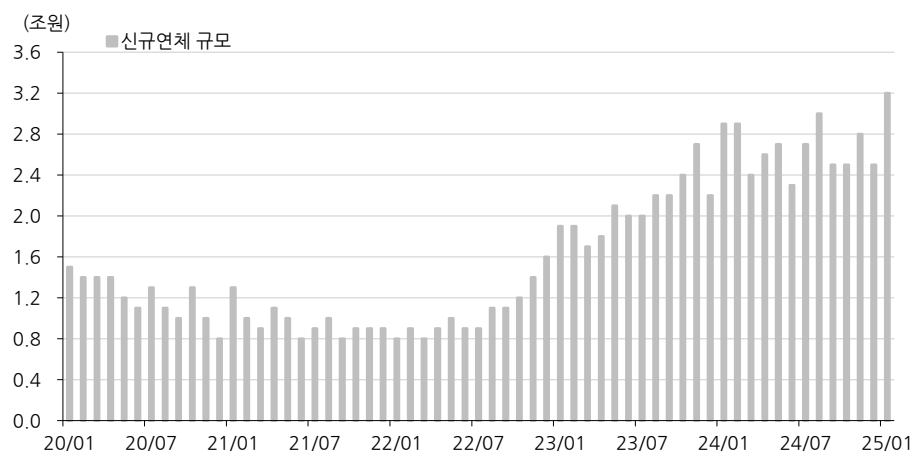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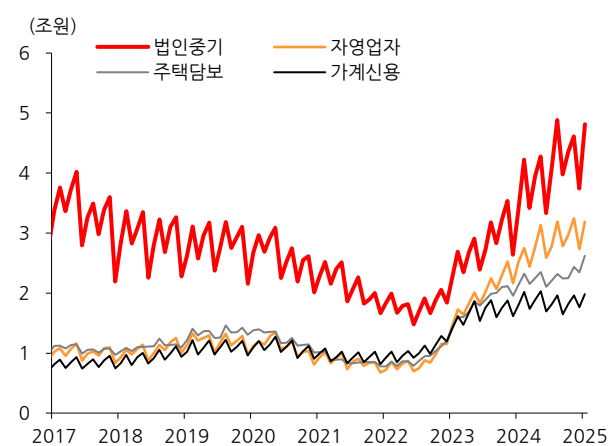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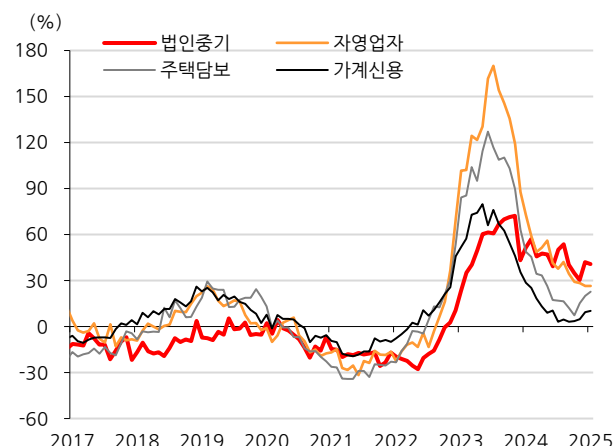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3월 2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권지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2.0%	8.0%	0.0%	100.0%